



케이블채널 tvN '아스달 연대기'가 정동건(왼쪽사진)·송중기 등 캐스팅, 540억 원 규모의 제작비 등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의 화려함에 어울리지 않은 성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 | tvN

대사 안 들리고 CG 엉성...540억 드라마 맞아?

(제작비)

대작 기대와 달리 시청률 6%대 부진 초반 일부 스태프 노동력 착취 논란 생소한 단어·복잡한 인물구도 한 몫 긴 촬영기간에 편집 디테일 못 살려

케이블채널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힌 '아스달 연대기'가 방송을 시작했지만 제작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뜨거웠던 시청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진도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스달 연대기'는 54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 장동건·송중기·김지민 등 호화 캐스팅, '나의 아저씨' '시그널' '미생' 등

으로 실력을 입증한 연출자 김원석 PD, '유희이 나르샤' '뿌리 깊은 나무' 등을 집필한 김영현·박상연작가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인적·물적 자원으로 시청자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9월 4주차 방송을 마친 뒤 시청률은 6~7%대(닐슨코리아)에 머물며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아스달 연대기'는 사전제작 드라마로,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모든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이처럼 긴 촬영과 후반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 시청자의 기대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촬영 장면의 시각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컴퓨터그래픽 작업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했지만 방송 시작 일주일 전 모든 촬영을 완료할 만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의 시선이 있다.

드라마는 시청자에게는 아직 낯선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와한족·해족·새넉족·흰산족 등 종족들의 영역 쟁탈전과 암투를 그린다. 가상의 세계인만큼 생소한 단어와 표현 등이 이색적인 즐거움을 안기기도 하지만, 극중 일부 연기자의 발음이 부정확해 시청자에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역시 후반작업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시선이 가능하다.

촬영 도중 일부 스태프가 제기한 노동력 착취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는 결과물이 앞선 논란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상쇄할 만큼 완성도 면

에서 뛰어나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540억 원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과도한 노동을 요구해놓고 재미와 완성도는 기대 이하" 등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은 드라마 자체에 대한 시선과는 별개로 제기되는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8일 "드라마제작사협회에 가입해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왜곡된 정보와 악의적인 비방은 갈등을 심화시켜 개선 논의의 기회를 막을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김 PD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노동력 착취 부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해시태그 컷



'커피차' 받고 온 조보아

연기자 조보아가 여동생의 깜짝 선물에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조보아는 드라마 '시크릿' 촬영장에 동생이 보낸 커피차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전화 잘 안받아 서운했는데, 넌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며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라고 남겼다. 예상치 못한 동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의 눈물을 왈칵 쏟았다. 팬들은 "자매의 우애가 아름답다" "언니를 챙기는 동생의 따뜻한 마음" 등 부러운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조보아 #동생선물 #감동 #눈물

뮤음형 예능 '취향저격 선데이'가 뜬다

채널A, 일요일 밤 겨냥 예능 브랜드화 'JMT연구소' '우리집에...' 코너로 구성 tvN '놀토', 감빵생활→도레미마켓

채널A와 tvN 등 방송사들이 '제2의 일밤'을 노리며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하나로 묶는 '예능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시청률, 탁월한 마케팅 효과 등을 노린 전략이다.

채널A는 지난달 '취향저격 선데이'를 신설했다. 일요일 밤 시간대 예능프로그램인 '우리집에 왜 왔니'와 '영국남자의 JMT연구소'를 코너로 내세웠다. tvN도 3월 '놀라운 토요일'을 1부 '호구들의 감빵생활'과 2부 '도레미마켓'으로 새롭게 구성해 방송



채널A '영국남자의 JMT 연구소'



tvN '도레미마켓'

중이다.

이는 앞서 MBC '일밤'이나 KBS 2TV '해피선데이'를 떠올리게 한다. 두 프로그램은 두 편의 굵직한 코너를 각각 긴 분량의 프로그램처럼 구성해 다양한 포맷으로

시청자 시선을 모았다. '해피선데이'가 '1박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일밤'이 '궁민남편'과 '복면가왕'을 묶어 각각 방송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놀라운 토요일'의 박성재 책임프로듀서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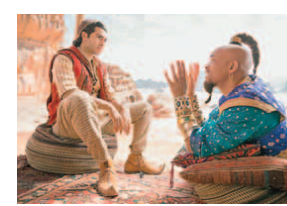
는 9일 '일밤' 등을 예로 들며 "잘 정착된 예능 브랜드가 있으면 새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인식시키기 훨씬 쉽다"고 말했다. 이어 "호구들의 감빵생활"을 내놓을 당시 '놀라운 토요일'의 한 코너로 소개해 방송 시간대와 그 특성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채널A는 더욱 적극적이다. 강성욱 채널 A 콘텐츠플러스 팀장은 "짧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보는 것을 선호하는 최근 시청 패턴에 맞는 시스템이다"고 강조했다. 강 팀장은 "제작진 입장에서도 '일요일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테마를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는 확장성이 매력적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연한 편성을 가능하게 하고, 시청자의 인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능 브랜드화 움직임이 앞으로 토요일이나 시간대를 강조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

92년 애니 실사 버전 '알라딘' 3040 앞세워 400만 관객 눈앞



영화 '알라딘'

영화 '알라딘'이 마지 매직카펫에 올라간 듯 흥행력을 발휘하고 있다. 9일 현재 400만 관객 돌파를 앞둔 영화는 5월23일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 '기생충'을 앞지르며 순위 역전했다. 상영 4주째에 예매율 1위에도 올랐다.

'알라딘'은 '천일야화'에 실린 만화를 옮겨 1992년 극장용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원작의 실사영화. 제작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가 1990년대 애니메이션을 실사영화로 만드는 프로젝트 '라이브액션'의 일환으로, 앞서 선보인 '미녀와 야수' '정글북'을 잇는 작품이다.

국내 관객 반응은 기대 이상이다.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알라딘'은 원작 애니메이션을 기억하는 3040세대의 추억을 자극하는 동시에 가족단위 관객까지 꾸준히 모으고 있다. 작품의 완성도가 뒷받침된 데다 '향수' 코드까지 통한 결과다.

관객의 실제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좌석판 매출은 8일 현재 55.6%(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로, 경쟁작인 '기생충'(45.8%)을 넘어섰다. 9일에는 예매율 순위도 역전했다. 관객 호응이 이어지자 영화 주제곡 'A Whole New World' 등을 따라 부르는 실용통상영도 진행된다. CGV는 "11일 서울 왕십리 4DX 상영관을 확장한 이후 참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런 분위기는 7월 중순 개봉하는 '라이브액션' 다음 주자인 '라이언 킹'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최고 인기작으로,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즌 가족단위 관객을 집중 겨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해리 기자 gafi1024@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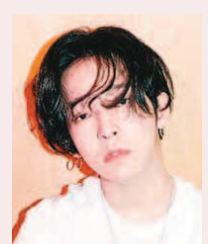
남태현, 양다리 연애... '작업실'에 불똥

(tvN 예능)

장재인, SNS에 "양심 갖고 살아라" '작업실' "두사람 분량 최대한 편집"

가수 남태현(25)이 대중적 비난에 휩싸였다. 동료 가수 장재인(28)과 연애 도중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현재 방송 중인 케이블 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작업실'에 함께 출연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4월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장재인은 최근 SNS를 통해 남태현과



남태현

다른 여성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이를 보면 남태현은 장재인과 교제하는 동시에 다른 여성과도 만나는 일명 '양다리' 연애를 했다. 장재인은 남태현을 향해 "다른 여자들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건 더 볼 수 없다. 정신 차릴 일이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살아라"

고 공개 비난했다. 이어 "알아가는 사이에 공개 연애라고 먼저 인정해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놓고선 이렇게 살고 있다"며 "공개 연애와 연락에 집착하던 이유는 자신이 하는 짓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태현은 SNS에 "몰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1시간 만에 삭제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남태현은 이후 SNS를 통해 손편지를 공개하며 "이번 일로 상처 받은 장재인과 다른 여성분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팬들에게도 실망과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팬들은 남태현의 신중치 못한

행동을 비난했고, 일부 팬들은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팬클럽 사이트 중 뮤지컬 갤러리 이용자들은 그가 출연 중인 뮤지컬 '메피스토'에서 하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또 다른 팬들도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남태현의 부적절한 처사로 장재인과 함께 출연 중인 '작업실'에도 불똥이 튀었다. '작업실'은 스타 뮤지션 10명이 음악으로 교감하는 내용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결별하게 되자 제작진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두 사람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